

# 도쿄올림픽 연기 기정 사실화

코로나19로 가능성 커져  
일본 정부·IOC, '강행'  
입장 고수 어려워져  
1~2년 연기하게 될 경우  
국제 대회와 겹쳐

오는 7월 열릴 예정이었던 2020 도쿄올림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올림픽 개최 시기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당초 7월 올림픽을 강행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통제력을 잃어버렸다. 미국 역시 확진자가 수직 상승하는 분위기다.

선수들은 7월에 맞춰서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사실상 훈련이 멈춰 기량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 일부 국가의 대표팀과 선수들은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일부 외신들은 일본과 IOC에 "전 세계가 싸우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 개최는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와 IOC에게 더이상 '강행'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4주 안에 올림픽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바흐 위원장은 선수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 19 억제를 기여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도쿄올림픽과 관련한 모든 의사 결정에서 이 점을 고수하겠다"며 4주 안에 취소보다 연기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올림픽 연내 개최, 1년 연기, 2년 연기 가능성에 대한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다.



2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 국회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도쿄 올림픽이 완전한 형태로 실시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운동선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연기 판단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코로나 19가 진정국면에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 10월 개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회 운영비 등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이다. 그러나 이는 올림픽 중계권사인 NBC가 난색을 표할 수도 있다. 미국프로풋볼(NFL)과 미국프로야구(MLB) 포스트시즌 등 인기 스포츠와 중계가 겹치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해서 연내에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될 경우 1년 또는 2년 연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부담해야 하는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캐나다올림픽위원회(COC)와 캐나다패럴림픽위원회(CPC)가 도쿄올림픽이 7월에 열린다면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올림픽 개최가 1년 이상 연기되면 참가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올림픽을 1년 연기하게 되면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와 겹친다. 세계수영선수권은 2021년 7월 16일 후쿠오카에서 열린다. 올림픽 때문에 수영 대회를 미루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경기장 확보도 문제다.

2년을 연기하면 올림픽 성공 개최를 논의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는 없다. 하지만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과 카타르월드컵이 모두 한해에 물리게 된다.

주목대에서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대회 유지비, 인건비 등 막대한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분양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뉴시스

# 수영 한국신기록 수립 포상제 14년만에 부활

개인 100만원 · 단체 200만원

대한수영연맹이 한국신기록 수립에 대한 포상제도를 14년만에 다시 시행한다. 대한수영연맹은 "제17차 이사회에서 올림픽 시즌에 선수들의 동기부여와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신기록 수립 포상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신기록 수립 포상제도는 2006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가 14년만에 부활했다. 다음달 30일부터 나흘간 김천실내수영장에서 개최되는 2020 경영 국가대표 선발 대회를 시작으로 연맹 주관·주최 국내대회와 국제수영연맹(FINA)에서 인정하는 국제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는 개인 종목 선수는 100만원을, 단체 종목 팀은 200만원을 받는다.

국가대표 선수들도 새로운 포상제도를 반겼다.

남자 평영 200m 한국기록(2분9초86) 보유자인 조성재(서귀포시청)는 "한국기록을 깬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한국기록 보유자라는 타이틀 외에 다른 포상도 따른다는 점에서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7개의 한국 기록을 경신한 정소은(울산시청)은 "대회 기록과 달리 한국기록은 아무나 깰 수 없다. 말로는 설명이 부족할 만큼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본다면 분명 좋은 제도"라고 전했다.

대한수영연맹은 한국기록 뿐 아니라 세계신기록상, 아시아신기록상, 올림픽,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아시아게임 포상금도 검토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뉴시스

## 일본인 10명 중 7명 "도쿄올림픽, 연기하는 편이 좋아"

요미우리 신문 설문조사 결과... 올림픽 연기론 힘 받아

일본인의 69%가 7월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연기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자 요미우리 신문이 발표한 20~22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올 여름 개최될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해 69%가 "연기하는 편이 좋다"고 답했다.

"예정대로 개최하는 편이 좋다"는 17%였다. "취소하는 편이 좋다"는 8%에 그쳤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율은 48%로 지난 조사(2월 14~16일)보다 1% 포인트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로 지난

조사에 비해 1% 포인트 줄었다.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여론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일본 정부의 지금까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는 응답은 53%로 지난 조사에 비해 17% 포인트 증가했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로 지난 조사에 비해 13% 포인트 감소했다.

일본 정부가 전국 초중고 등에 대해 봄 방학까지 임시 휴교를 요청한 데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64%였다. "그렇지(적절) 않다고 생

각한다"는 28%에 그쳤다. 정부가 휴교 요청을 연장할 방침에 대해서도 7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악화될 경우 만일 일본 정부가 개정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긴급사태'를 선언할 경우에 대해서도 72%가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당연하다"도 19%였다. 7%만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7월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아베 총리까지 연기를 언급하면서 도쿄올림픽 연기론이 힘을 받고 있다.

23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도쿄올림픽과 관련 "만일 그것(완전한 형태)의 실시"에 곤란한 상황이라면 운동선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연기 판단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 틱톡커 '사범저스'와 태권격파챌린지



태권도진흥재단, 내달 11일까지  
송편부터 사과까지 소재 무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통해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태권격파챌린지'를 진행한다.

틱톡 이용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태권격파챌린지'는 태권도 송편을 비롯해 오이, 당근, 스티로폼, 사과 등 일상 속 어떤 소재든지 격파하면 된다. 태권도진흥재단의 태권격파챌린지에 함께 하고 있는 틱톡커 '사범저스'는 태권격파챌린지에서 코로나19를 날려버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번 '태권격파챌린지'는 틱톡 앱에서 사운드 탭 '태권격파챌린지' 음원을 선택한 후 격파 영상을 제작해, 필수 해시태그인 '태권격파챌린지'와 함께 '전체공개'로 업로드하면 된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용 사업본부장은 "태권격파챌린지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 일상의 고민, 스트레스 등을 날리자는 취재로 기획되었다"라며 "격파의 난이도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재미있는 격파 챌린지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태권격파챌린지'에 참여한 50명을 선발해 구글 기프트카드 1만원권을 증정할 예정으로 4월 17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무주=전문선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